



2006년 경영방침

- 블루오션 창출
- 경영효율 배가
- 조직력 강화
- 브랜드력 제고

“배선기구”-모든 전기제품의 기본

[(주)위너스]



김창성 | 대표이사

‘신록의 계절을 맞아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위너스에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포천시 내촌면에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변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더욱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사옥 입주를 기념하는 뜻으로 조출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재삼 기원합니다.’

지난달 4월 19일(수요일) 15~18시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375-3에서 (주)위너스가 포천 신 사옥을 개설하면서 초청한 내용이다.

신사옥 입주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김사장은 “기업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너스는 임직원이 있는 힘을 다하여 고객 만족과 에너지 절감 그리고 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있게 밝혔다.

전력·전기분야에서 배선(配線 : wiring)이란 전기, 전자, 전화, 전신장치나 기기에 있어서 각 구성 부품, 패널 광채 또는 랙(rack : 架) 상호간을 접속하여 회로, 방식, 회선을 구성하기 위한 도선을 말한다. 각 도선은 그 접속 장소, 방향, 부품, 회로의 중별 등을 잘 알수 있게 하기 위한 색별 선종 등이 보통 채용된다.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구역 전체의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과 이것을 지지 또는 보관 하거나 저장하는 모든 공작 물을 총칭하기도 한다.

전력의 절전 및 안전을 뜻하는 약어 "P&S" 즉 Power-Saving & Safety를 모토로 하는 (주)위너스는 1996년 6월 당시 일신기전으로 설립하여 배선용 콧음접속기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에너지절약형 멀티탭을 국내 최초로 일본에 수출하였고 380V 고압 커넥터 플러그류의 국산화개발에 성공하였다. 뒤이어 에어컨용 콘센트 스위치를 개발하였고, 에너지 절약형콘센트를 개발하였다. 곧 절전 안전4구 멀티탭을 일본에 첫 치너 수출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옥내용 소형 스위치를 개발하여 국내에 시판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주)위너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기와 전기기기가 이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한 전원을 공급하는 콘센트와 이를 제어하는 스위치는 영구히 함께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의 개발은 물론 신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매출의 극대화와 기업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요사이 유행하는 블루오션(Blue Ocean)전법이다. 평소에는 비교적 말수가 적은 김창성 사장은 창업동기와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사업전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이나 상가, 공장, 건물에 사용되는 기초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한 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신기술의 절전형이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계속 연구개발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제품력과 탁월한 이미지로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소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역설하는 대목이다.

"제조자들은 무조건 결함없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이윤창출보다는 불특정다수의 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한다고 봅니다. 지금 IT시대에서 사는 우리 제조자들은 이외에도 내구성, 절전성, 친환경성, 편의성, 재활용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모두 일반 전

기제품의 사용자인 일반 대중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어느 조건하에서도 항상 옳다고 봅니다." 배선기구생산인으로 보다 오히려 공정한 사회인으로서의 색채가 깊은 김사장은 계속해서, "기업은 사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해야지요. 그러나 창출된 이윤은 마땅히 사회에 어떤방식으로든지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 (주)위너스 멀티탭(내부, 스위치부)